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 대학생 튜터링에 참여하세요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들이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 대상

튜터 교·사대생 및 일반대생

튜티 초중등학교 학생(특수학교 포함)

### 참여 방법

튜터 소속 대학 모집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통해 신청

튜티 단위학교(초·중·고교) 계획에 따라 담임 등 담당교사에게 신청

### 튜터 인센티브

근로장학금(시간당12,500원) 지급, 대학의 관련 계획에 따라 교육봉사 활동 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 인정 가능

### 운영 기간

'22년 3월~'23년 2월

### 문의처

소속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290

교육부



04 vol.477
2022 APRIL

#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2 꿈이 영그는 현장
충북 은여울중고등학교
삶을 가르치는 충북 1호 대안학교;
교학상장이 일어나는 '성장공동체'

10 에듀피플
홍창섭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수학도 게임처럼 해보자"

36 교육웹툰
국토 최동단 독도를 알아볼까?

46 진로직업인
신환희 수어통역사
농인의 고유언어 '한국수어'로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




교육부

#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vol.477 2022 APRIL

**COVER STORY**

충북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고등학교(교장 신현규)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와 돌봄 외에도 꿈을 찾도록 진로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학생들은 3월 한 달간 생활목공, 재봉, 풀·꽃·사람 원예, 심리난타, 영상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1년간 집중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사진은 풀·꽃·사람 원예 프로그램 모습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조재익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양아라, (객원)김혜진, (객원)서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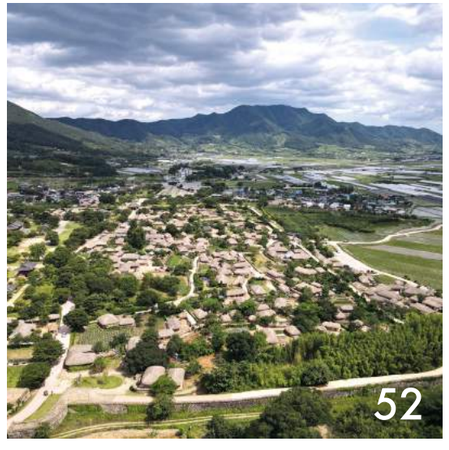



**특별기획**

**다름과 어울림의 세상 '다양성 교육'**

16 학교에서 시작하는 다양성 교육
18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22 탈북학생의 힘겨운 한국 적응기
26 학교 안팎 다문화교육의 현주소
29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를 위한 다문화교육

02 **꿈이 영그는 현장**
충북 은여울중고등학교
삶을 가르치는 충북 1호 대안학교; 교학상장이 일어나는 '성장공동체'
07 **네 꿈을 펼쳐라**
대구북중 날뫼북춤동아리
"신명 나는 춤사위에 스트레스도 저리 가라"
10 **에듀피플**
홍창섭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수학도 게임처럼 해보자"
32 **정책을 말하다**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계획
36 **교육웹툰**
국토 최동단 독도를 알아볼까?
38 **교육자치시대**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 도입 "놀이로 AI와 만나요!"
41 **이달의 교육뉴스**
학생 224만 명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 外
42 **교육포커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다!
46 **진로직업인**
신환희 수어통역사
농인의 고유언어 '한국수어'로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
50 **체험! 진로현장**
제2의 공용언어로 '수어' 함께 배워요!
52 **일상의 쉼표**
시간 여행자의 낙안읍성 느린 여행
56 **교실혁명①**
4P 과제설계 프로젝트로 창의력 키우는 수학교실
60 **교실혁명②**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62 **명예기자 리포트**
새로운 시민성은 무엇인가?
64 **독자마당**



충북 은여울중고등학교

# 삶을 가르치는 충북 1호 대안학교; 교학상장이 일어나는 '성장공동체'

교육 행정에 자주 등장



1

**2017년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돕기 위한 치유형 공립대안학교로 은여울중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은여울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와 돌봄 외에도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에도 교육목표를 둔 은여울중고등학교(교장 신현규)의 구석구석을 탐방하였다.**

글 _ 편집실

1 2 3 학생들은 매일 '아침모임'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2



3

## '은여울' 맞춤 '성장공동체 프로그램'

충북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가 2017년에, 은여울고등학교가 2021년에 문을 열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와 돌봄 외에도 진로교육을 통해 꿈을 찾아주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의 개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연계 교육이 가능해졌다.

공교육의 책무로 남아있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일관된 철학과 맞춤형 교육으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설립된 이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디딘 학생은 1학년 12명, 2·3학년 22명 총 34명이었다. 당시 은여울중에 입학한 학생들의 사연은 제각기 달랐지만, 공통분모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유와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A), 분노조절장애, 자해, 자살충동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도탈락 위기에 처한 학생,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학업중단 중 장기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위기가정에서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학교에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만큼 일반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했다.

초창기 개교 T/F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충북대안교육연구회 소속 은여울성장공동체연구회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모형을 찾기 위해 학교, 치료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참관할 수 있는 수업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갔고, 수업, 실습, 회의, 세미나, 연구·토론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민과 연구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운영한 '모닝미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함께 갔던 교사 모두가 '유레카'를 외쳤다.

"바로 이거야! 라고 모두 입을 모았어요. '모닝미팅'은 미국 치료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면서 서로 협동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의 핵심이 치유와 회복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에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개교 T/F팀부터 지금까지 은여울중고와 함께 해온 천선진 교사와 은여울성장공동체연구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닝미팅'을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의 성장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장공동체에는 4개의 모임과 4개의 대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장공동체의 핵심모임인 '아침모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는 '저녁모임', 질문·공감·존중·경청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전체 세미나', 그리고 성장공동체의 통합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비상총회'가 있으며, 모임의 성격에 따라 매일 또는 필요시에 열리고 있어요."

김현아 교감은 이 같은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일상을 살아오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주체적 배움,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 '소중한 나'를 깨닫는 시간 '아침모임'

청명학생교육원을 전신으로 하는 은여울중고의 아침은 모두가 함께 하는 '아침모임'으로 시작한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교직원과 학생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동체철학과 생활철학을 암송하고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활기차게 하루의 문을 연다.

"'아침모임'은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협동과 배려를 통해 하루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개교부터 함께해 온 김현아 교감은 아침모임의 효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철학암송', '알림', '잘할 수 있어요', '칭찬 보따리', '나눔', '뉴스와 날씨', '신나요' 등 매일매일 반복해서 진행되는 4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마음을 다잡고, 격려와 칭찬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염태현 학생은 아침모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아침모임은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친구들과 선생님이 '안녕, 태현아'라고 대답해주거든요. 그걸 들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모두 존중받고 있구나 하고 느껴져요. 일반학교였다면 경험하기 힘든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은여울중은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4 심리난타 프로그램
5 풀·꽃·사람 원예 프로그램
6 재봉 프로그램
7 생활목공 프로그램









## 진로탐색·인턴십 통해 사회 '첫발' 준비

'아침모임'이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면 진로탐색과 인턴십은 학생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올해 은여울중학교 학생들은 생활목공, 재봉, 풀·꽃·사람 원예, 심리난타, 영상제작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문 강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학교로 와서 학생들과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3월 한 달간 여러 수업에 들어가 체험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1년간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는 방식이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해당 직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적으로 완성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지, 힘든 점이 무엇인지, 실패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지도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게 김 교감의 생각이다.

은여울고의 경우, 현재 순차적인 입학을 진행하고 있다. 순차적 입학은 한해에 한 학년씩, 3년에 걸쳐서 1/2/3학년 입학생을 나눠 받는 것을 말한다. 순차적 입학을 선택한 이유는 공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문제가 주요했지만,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올해 고1 9명과 고2 12명의 학생들은 각종학교법에 따라 보통교과 중 국어,

사회, 역사만을 공부하게 된다. 그마저도 일반학교의 50% 선에서 학습하고 나머지 교과나 체험활동 등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느끼는 책임감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협의회와 내부 교육과정평가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은여울고는 첫해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진로탐색과는 달리 고교 진로교육은 인턴십을 통한 주체적 배움을 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등학교 1학년 인턴십의 경우 직업·행복·주도적 삶 등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2학년이 되면 한 달 정도의 단기 인턴십을 진행한다. 3학년에는 한 학기를 할애하여 장기 인턴십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에 나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현장에 나가는 인턴십은 올해 고2 학생들이 첫 주자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례연구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학교의 계획이다.

은여울중을 졸업하고 지금은 은여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니엘 학생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았다.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진로탐색을 하면서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로탐색보다 더 좋았던 게 몰랐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환경 탓, 남 탓만 하던 제가 생각하는 힘을 길렀고 다른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심,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익혔어요. 은여울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입학 초기에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학생이었지만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주기적으로 진행된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재는 음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되었다.



8 은여울중고등학교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주기적인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있다.

## 치유형 대안학교, 회복과 성장이 있는 학교

충북 1호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고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 한 아이도 교육과 성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치유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부적응 학생들만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상당하지만, 실제 저희가 6년 동안 운영해보니 아이들이 정말 빨리 회복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아 교감은 은여울중고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기 위한 공교육의 보완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교육의 선도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일년에 4회 진행하는 일일체험에는 전국에서 교사들이 몰려오고 있다. 괴산에 위치한 청안중은 은여울중고에 교직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면서 성장공동체의 철학을 교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수 있는 치유형 대안학교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대구북중
날뫼북춤동아리

# "신명 나는 춤사위에 스트레스도 저리 가라"




**20년 넘게 대구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북중학교(교장 고희전) 날뫼북춤 동아리의 셋방살이 분투기가 끝나간다. 올해 5월 드디어 강당이 완공되는 것. 그동안 인근 학교의 강당을 빌려 써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매년 전국대회 수상을 놓치지 않았던 배경에는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학생과 교사가 있었다. 새로 지은 강당에서 마음껏 북을 두드리고 뛰어오를 동아리 학생들의 날뫼북춤을 기대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대구북중학교

## 북으로 전하는 위로 '날뫼북춤'

'둥둥둥' 묵직한 북소리에 맞춰 동작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마스크 쓴 얼굴은 땀방울 범벅이 된다. 그래도 연습을 멈출 수는 없는 것. 민속예능 중에서도 역동적인 군무인 날뫼북춤은 공연자들이 한 몸인 듯 춤사위를 맞추어야 그 멋이 제대로 살아난다. 안종현(2학년) 학생은 "날뫼북춤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서 서구 비산동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으로 북, 꽹과리, 장구, 징, 태평소 등의 연주가 어우러진다."라고 설명했다.

'날뫼'라는 말은 한자로 비산(飛山)이라고 쓴다. 비산동의 지명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옛날부터 서울에서 원님이 부임해 오고 갈 때 날뫼 '원고개(원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쉬어 갔다고 한다. 한 덕망이 높던 원님의 순직을 안타까워하던 주민들이 지내던 제사가 비산농악의 시작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북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 날뫼북춤이 되었다. 열두 개의 북이 한마음으로 두드리는 장단에 원님의 혼이 위로받기를 기원한 것이다.





변변한 연습실이 없어 근처 초등학교 강당으로 원정을 가거나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운동장에서 연습해왔던 세월도 드디어 끝이 난다. 올해 5월이면 다목적강당이 완공되기 때문이다. 동아리를 맡고 있는 류주희 교사는 "날뫼북춤은 동작이 크고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춤인데 그동안 강당이 없어 연습과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좁은 다목적실에서 북을 메고 돌다가 아이들이 기둥에 부딪히면 무척 속상했는데 앞으로는 다칠 걱정 없이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오랜 전통계승이 동아리 자부심

지난 2000년 창단해 올해로 22년 차에 접어든 동아리는 그동안 각종 민속대회 및 전국날뫼북춤경연대회에서 대구광역시 시장상(2013년), 문화체육부 장관상(2016년) 등 굵직굵직한 상을 받아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제19회 전국날뫼북춤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가 가능한 날이면 모두가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다목적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연습에 몰두했다. 24명의 학생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방과 후 2시간씩 예능보유자 윤종곤 선생의 지도를 받았다.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굿거리장단), 덩덕궁이(자진모리장단) 등 전통가락과 엎어빼기, 자반득이(반직굿) 등 동작과 대형연습을 하다 보면 다음날까지 힘이 들 때도 있다고. 이시연(2학년) 학생은 "연습을 하다 보면 운동이 되는 느낌이어서 살도 빠지는 것 같다."라며 연습의 고됨을 웃으며 말한다.

1 3 학생들이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을 북소리에 추고 있다.
2 인근 초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있는 날뫼북춤 동아리 학생들

윤종곤 선생은 "날뫼북춤은 군무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울 때 가장 먼저 협동심과 화합을 배우게 된다."라며 "유독 어려운 동작이 많아 동작을 익히는 과정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며 이뤄내는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날뫼북춤은 흰옷과 녹색조끼, 상투와 머리띠, 허리춤에 두르는 띠까지 오방색을 복색에 갖추고 공연한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공연 복장을 갖춰 입는 것도 매우 복잡한 일이다. 게다가 20여 분 동안 무거운 북을 들고 재주를 넘거나, 앉았다 일어서고 다시 북을 들고 돌면서 대형을 만드는 등 마무리 굿을 할 때까지 쉴 틈이 없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김민송(2학년) 학생은 "온라인 대회 참가 때문에 영상제작을 할 때 옷을 입고 계속 공연촬영을 해서 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나(2학년) 학생은 "날뫼북춤은 공연하기 전 준비할 때 옷 갈아입고 머리하는 것부터 굉장히 복잡해서 힘들다. 그렇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엄청 뿌듯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서 끝나서 예전처럼 양로원 같은 곳에서 공연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윤주(2학년) 학생도 "연습할 때는 힘든 점도 있지만 어려운 만큼 작품이 완성되면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류주희 교사는 "본인의 열정이 없으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기 힘들다.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연복을 갖춰 입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함에 눈물이 날 만큼 뭉클하기도 한다."라며 동아리 지도의 감동을 전했다.

### Mini Talk



**최혜진(3학년)**

처음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학교생활이 활기차졌어요. 연습하고 나면 그다음 날까지 힘들 때도 있지만 공연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들어요. 대구의 전통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요.



**김민송(2학년)**

날뫼북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워요. 국악 관련 전공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때 정말 좋아요. 공연은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만큼 재밌어요.



**한윤주(2학년)**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양한 국악기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마스크를 끼고 역동적인 동작을 계속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기분이 정말 좋아서 윤종곤 선생님처럼 예능보유자가 되어 볼까 생각하게 돼요.



**이시연(2학년)**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 좋아서 동아리를 시작했는데 국악 관련 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요. 날뫼북춤 장단을 외우는 건 어렵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 꼭 대상을 받고 싶어요.

**EBSMath의 시조새**

홍창섭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 “수학도 게임처럼 해보자”

**수학학습 플랫폼 EBSMath 개발을 시작으로 ‘이지통계’, ‘알지오매스’ 등 현재까지 100여 개 이상의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 온 경희여고 홍창섭 교사.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중·고등학교용 수학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해 왔다. 그동안 ‘쉽고 재밌는 수학’ 연구에 매진해온 그를 봄 향기 피어오르는 교정에서 만날 수 있었다.**

글_편집실

+ 대전 소양 (2022)

‘교육용 콘텐츠 개발은 물론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수학 및 정보교육 전문가’. 경희여자고등학교 홍창섭 교사에게 자주 붙여지는 수식어다. 2012년 출범한 수학학습 누리집 이비에스메스(EBSMath) 개발은 물론 ‘이지통계’, ‘이지그래프’ 등 100여 개가 넘는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참여했다.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재미있는 수학을 목표로 한 초·중·고교 수학실험 탐구용 교육프로그램 ‘알지오매스(AlgeoMath)’의 기획자문위원으로도 참가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개최됐던 ‘수학·과학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책포럼’ 발제,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 실무위원, ‘제3차 과학, 수학, 정보 및 융합교육종합계획’ 연구위원 등 수학 및 과학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잇고 있는 활동들이다.

경희여고는 지난해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와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로 선정됐다. 홍 교사가 이끄는 이 ‘AI스쿨 프로젝트’로 경희여고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영재학급 승인까지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20명의 AI영재가 선발되어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가는 중이다.

## 게임처럼, 즐기면서 하는 수학 공부

“학교 수학교육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EBSMath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였죠. 수업 차시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영상을 활용,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실제 수업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 5분짜리 영상을 활용하고, 또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중학교 수학 수업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2012년 8월의 첫 기획 회의 때부터 참석해 온 터라 그곳 구성원들은 종종 저를 ‘EBSMath의





1 홍창섭 교사는 수학학습 플랫폼 개발을 시작으로 '이지통계', '알지오매스' 등 100여 개의 수학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시조새'라는 닉네임으로 부르곤 합니다(웃음)."

홍 교사의 교직 생활 첫 부임지는 경희여중이었다. 이후 경희고를 거쳐 6년 전, 이곳 경희여고로 옮겨왔다. 첫 부임지에서 8년 동안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모색하던 수학 수업의 변화의 모멘텀을 EBSMath 개발 참여로 녹여낼 수 있었다. EBSMath 구축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아이들의 수학 시간이 재밌어졌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게임을 하듯이, 수학 공부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하자는 취지였어요. 예를 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게임을 통해 끝까지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게임의 각 구성요소에는 단계마다 '칭찬'을 배치해 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게임을 지속하는 동안의 칭찬 릴레이로 사용자가 자신감과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요."

대개는 수학 수업이 잘하는 아이 위주로 전개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아이는 더욱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한 아이에게도 흥미를 느낄만한 게임 영상 등을 적용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중요한 설계 목표였다는 홍 교사의 설명이다.

## 쉽고 간편해진 통계 수업, '이지통계'

그동안의 콘텐츠 개발 중 홍 교사가 가장 공을 들인 부문은 바로 '이지통계'다. 기획 및 개발에만 3년이 소요된 프로젝트였다. 현재 10종의 중학교 교과서 중 9종에서 이 '이지통계' 툴이 적용되어 있다. '이지통계'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활용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것.

"통계는 교과서 자체로도 학생들로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툴 대신, 학교 수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만으로 설계된 '이지통계'는 어떤 실험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했어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홍 교사가 최근 들어 선호하는 수업방식 역시 이러한 도구들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통계 수업'이다. 이 프로젝트 수업의 필수요건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는 것.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실제로 경희여고 학생들은 학교 앞 분식점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분석하고, 의대와 약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 조사 및 개선 캠페인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곤 한다.

+ 프로젝트 (구상법) 킬페트릭

이처럼 홍 교사의 프로젝트 통계 수업은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때로는 타 교과와 연계하는 교과융합형 프로젝트로도 수업이 진행된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 특히 AI영재학급 강의에는 경희의료원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김혁기 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2 경희여고 AI영재학급 수료식 모습. 사진 맨 오른쪽이 홍창섭 교사

## funmath, 그리고 교과서 집필에 쏟는 열정

여러 콘텐츠 개발 중에서도 홍 교사가 가장 의미를 두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교과서 집필. 이때만큼은 수학 교육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기간이라고도 했다. 홍 교사의 표현대로라면, 말 그대로 '올인해야' 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수학 교과서, 그리고 고교 선택과목인 <실용통계>, <인공지능 수학>, <경제수학> 집필에 참여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한다는 그는 "이전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별로 내용 면에서 분절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면서 "이번 교육과정에는 양 학교급별 콘텐츠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볼 계획"이라는 뜻도 들려줬다. 또 EBS와 함께 작업한 수학 문제집 발간도 현재까지 100여 권이 넘는단다.

"가끔 지인들로부터 대체 '잠은 언제 자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저는 건강한 일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자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저로서는 수업 준비하기에 제격이에요. 지하철 이동 시간이 사색하기에 좋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도 그만이죠. 요즘엔 저와 같은 경로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저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목격될 때면, 참 대견하고 기특해요(웃음)."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아선 안 되는 영역이 바로 학생들과 만나는 수업시간이라고 말하는 홍 교사. 수학교사로서 쉽고, 재미있는 수업 운영은 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18년 전,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디며 만들었다는 그의 이메일 계정, 'funmath(재미있는 수학)'에도 그러한 초심이 그대로 담겨있다.

올해 후반기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EBS 교육 플랫폼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초·중등학생들의 학습 콘텐츠 및 공공교육 서비스를 위한 가상의 학습공간 '메타캠퍼스'다. 홍창섭 교사는 EBSMath 누리집에 이어, 현재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SPECIAL

# 다름과 어울림의 세상 '다양성 교육'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다양성이 아닐까? 우리 학생들이 다름이 아닌 다양성을 배우고 포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다름과 어울림의 세상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본다.

16 학교에서 시작하는 다양성 교육
18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22 탈북학생의 힘겨운 한국 적응기
26 학교 안팎 다문화교육의 현주소
29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를 위한 다문화교육



글 _ 조형숙 서원대학교 조교수

# 학교에서 시작하는 다양성 교육



학교에서 시작하는 다양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두 손에는 짐이 가득한 상황, 건물을 나서려는데 출입문이 막아선다. 손으로 여닫는 출입문 옆에 자동문이 있다. 'PUSH 눌러주세요'가 적힌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고 나왔다. 사범관 앞에 도착하니 자동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자동문은 처음에 장애인을 위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당연히 편리하다. 캠퍼스 내 장애 학생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들의 니즈(Needs, 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반영하는 학교의 다양성 전략이 신입생 충원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존의 구성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유네스코가 "학습자 다양성(Diversity)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므로 환영해야 할 장점"이라고 강조한 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 학습자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다

한국 사회는 2020년 11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마주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당연한 결과를 낳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임산부석을 마련하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영유아 돌봄 사업을 확대하지만 아마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업무 역량을 꾸준히 배양하여 70~80세까지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100세 시대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10여 년간 출산과 보육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분산시킬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 출산율 감소와 한국 이주를 원하는 이들

다행스럽게도,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은 많다.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도 많고, 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으며, 난민 신청자와 탈북민도 많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선진국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도 많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와 북간도 등으로 떠났던 이들의 후손이 한 세기만에 동포비자와 방문취업비자(H-2) 등을 통해 유턴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마음은 아직은 이주민에게 덜 열린 것 같다. 한국이 미래비전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저출산 쇼크에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조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6만 명을 넘어섰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업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맡았지만, 그들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학교가 맡게 되었다.

"혹시 선생님 학교에도 다문화 학생이 있나요?"

학교에서 학습자 다양성은 이미 가시화되었고 이런 질문은 이제 현실감 떨어지는 질문이 되었다.



## 학교, 다양성의 가치가 깊을수록 지식의 원천은 풍성

학령인구가 넘쳐나던 1970~1980년대는 콩나물 교실에서 교사중심의 획일적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었고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는 학습자만 수업을 따라가고 명문대학으로 진학하였다. 반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습자의 니즈를 고려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교사는 유일한 지식의 전달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자가 학교로 가져오는 문화적 경험을 교육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조력자가 되었다. 학교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뿌리 내릴수록 지식의 원천은 더욱 풍부해진다.

한편, 학교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2년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2001년 제31차 총회에서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2010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2014년 우리나라는 「문화 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교육과정과 핵심역량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문화교육과 다양성 교육은 한국의 미래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다양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가 홀대받고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받는다면 글로벌 고급인력이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장애 학생, 영재 학생, 학습부진아,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 및 귀국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의 니즈와 문화를 수용할 근거가 되는 셈이다.

학교의 역할은 다양한 학습자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알려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자동문이 장애인에게만 편리한 것은 아닌 것처럼 문화·인종·언어적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꿈의 표준이 달라지고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지는 이 시대에 학교에서 시작하는 다양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 _ 신상미 성남서초등학교 교사

#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 처음 통합학급 운영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다.

## 한 아이와 3년간 함께한 통합학급

지난해까지 나는 자폐 스펙트럼 성향을 지닌 아이가 있는 통합학급 담임을 3년 동안 맡았었다. 일반 학급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한 명을 3년 연속하여 담임을 맡는 일은 드문 일이다. 보통은 1년씩 맡는데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였고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연속 담임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3년씩이나 '힘든 아이'를 맡다니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봤다. 처음 통합학급 담임을 맡았을 때는 선뜻 맡기 힘든 학생을 누가 맡을 것인가 갈등하는 모습이 후배 교사들에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자폐 학생에 대한 경험도,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했다.

두 번째 해는 새 담임이 누가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 때문이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부모님은 아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고 그것이 다른 학부모님들보다 몇 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없는 해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통합학급 담임을 맡았다. 그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3월 개학이 미뤄지고 원격으로 수업을 하던 해였다. 다행히 아이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수교사와 협의하여 원격 등 다양한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해는 이 학생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아이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의 특성에 맞춰 함께 해 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

## 자폐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불안하고 두렵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 피하거나 비난하기 쉽다. 자폐 학생은 반복되는 말, 반향어를 많이 하고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이들은 그 친구가 울거나 폴짝 뛰고 손뼉을 치면 이상하게 쳐다봤고 다가오면 피했다. 통합학급을 맡은 지 며칠이 지나고 그 자폐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봤다. 학교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렵게 보고 피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때부터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울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는 덥고 답답하면 울었다. 땀이 나는 것이 보이면 얼른 외투를 벗으라고 하고 선풍기를 틀어주었다. 교실이 매우 시끄러워도 불안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다. 이렇게 관찰한 것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와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니 친구에 대해 함께 알아 가보자고 했다.



## 자폐 친구의 변화에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아이들

아이들은 교실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대부분 '정말 이상해'로 시작한다.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10대 초반의 시기 발달단계에서 아이들은 타인을 '다르다'보다 '이상하다'로 받아들인다. 나와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친구와 잘 다투고 나와 같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금방 친해진다. 처음 통합학급 운영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다. 낯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것은 '책'이었다. 요즘 '온 작품 읽기' 활동을 하는 학급이 많은데 '배려, 다름, 존중, 관계, 공감' 등 통합학급 운영에 필요한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기에도 좋다. 우리 반은 거의 매일 함께 꾸준히 책을 읽었다. 그림책도 보고 동화책도 읽었다. 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이야기, 함께 생각해봐야 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책을 읽었다.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은 훨씬 솔직하고 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꺼냈다. 아이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 자폐 학생이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교실에서는 소리 내고 돌아다녀서 몇 번이나 읽다가 중단했었다. 아이가 이 시간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원격수업에서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소리를 내더라도 귀를 화면에 대고 자리에 앉아 열심히 들었다. 나중엔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말하기도 했다. 다시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자폐 학생이 교실에 있을 때, 함께 책을 읽었다. 자리에 앉아야 하고 조용히 해야 하는 연습도 했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 학생도 친구들과 수업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했다. 특수교육 학생이 원반에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배움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폐 학생은 늘 '친구랑 같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수업 활동을 이 학생에게 맞게 조정하고 개별화했다.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면 삼각형을 그리고 오리는 활동을 했다. 다하고 나면 완료 도장을 같이 찍고 '하이 파이브'를 하며 성취감을 높였다. '하이 파이브' 힘은 컸다. 자신의 활동이 먼저 끝나도 다른 친구들 학습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일이 늘어났다.

반 아이들과 이런 서로의 변화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점 수업 시간에 함께 하는 자폐 친구의 변화에 아낌없는 응원을 해 주었다. 자폐 친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성장도

찾아 자주 이야기했다. 사소한 것이라도 노력한 것이 보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일은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힘이 되었다. 친구들도 열심히 하니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이것은 자폐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 모든 성장이 우리가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라고 말했다.

## '전학생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주자'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맞이한 통합학급 3년째. 첫날 두 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다.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그중 한 학생이 자폐 친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보통 자폐 친구를 보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학생은 화를 냈다. 이 화는 한 학기 내내 이어졌다. 자폐 학생은 수시로 소리를 내고 손뼉을 친다. 다른 아이들은 그러다 멈추는 것을 알기에 그냥 자기 할 일을 이어가는데 전학생은 그때마다 시끄럽다고 화를 내며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교사인 내겐 왜 저 아이가 소리를 내도 그냥 두느냐, 쟤도 안 하니 나도 공부 안 하겠다, 학생 하나 조용히 못 시키는 선생이라며 화를 냈다. 반 아이들이 너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방해된다고 하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면서 분노했고 아이들과 자주 다투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우리 반에 있는 장애 학생 때문에 자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저 부모는 왜 이런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가, 담임이 조처하라고 민원 전화를 하셨다.

통합학급 2년 동안 듣지 못한 말들이었기에 당황스러웠다. 또 다른 전학생은 조용한 아이였는데 글쓰기 공책에 '그 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여기 선생님과 아이들은 대단하다.'라고 썼다. 교실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통합학급은 교실에 한정된 일일까.

교실에서 잘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과 세상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며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학부모님이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아주 서서히 자라지만 분명 커나간다. 그 방향을 폭넓게 제시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때 나는 전학생도 통합학급 안에서 분명히 잘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반 아이들에게 '전학을 온 친구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주자.'라고 했다. 이 학생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떤 두려움과 분노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는 왜 욕하고 화내는 자기를 벌주지 않느냐고 했다. 원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혼내는 사람이 아니냐면서. 난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며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나 말하라고 했다.

## "너는 아주 멋진 반에 전학을 왔다."

화내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교실을 뛰쳐나가는 전학생의 행동은 이어졌다. 담임 교사로서 힘든 시간이었다. 어느 날 수학 시간, 이 학생이 칠판 앞에 나와 수학 문제를 낑낑대며 풀고 있었다. 수업을 잘 듣지 않았으니 수월하게 풀지 못했다. 나는 남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약분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다시 더해 봐." 얼마 후 전학생이 답을 풀어내자 아이들은 다 같이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나도 놀랐고 이 전학생도 놀랐다. 매일 화내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에 당황한 듯 보였다. 아이를 다그치려던 나의 마음이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동안 통합학급을 하면서 했던 말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기다려주자, 어려울 땐 함께 돕고 응원하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너는 아주 멋진 반에 전학을 왔다." 나는 전학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였을까, 전학생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동안 막말을 했던 자폐 학생에게도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자폐 학생은 알아들었는지 몸을 앞뒤로 흔들며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했다. 수업 시간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들고나왔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워도 한번 해 보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 우리 반의 자랑거리는 '통합학급'

아이들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우리 반을 만들어갔다. 담임인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커나갔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리 반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반',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반'이라고 썼다. 놀라운 것은 우리 반의 자랑거리를 '통합학급'이라고 쓴 것이다. 통합학급이 자랑인 아이들이라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전학생의 변화도 예상 밖이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지난 모습을 매우 부끄러워했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욕하고 화냈던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자폐 친구까지 서로 돕는 우리 반, 그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든 뭐든 열심히 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장애, 비장애를 떠나 있는 그대로 보았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완의 존재인 서로를 믿고 기다리고 함께 공부하는 사이, 새싹처럼 쑥쑥 자랐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수많은 일이 있었던 통합학급 3년을 보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동안 특수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과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협업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교육은 교실에서 담임 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고, 생각의 틀이 많이 깨지면서 내 앞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남았다. 아이들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애, 비장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다양성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정해진 틀을 요구하는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할 수 없다. 다양성 안에서 성장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며 그 힘은 바로 아이들에게 있다.



글 _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 탈북학생의 힘겨운 한국 적응기

**탈북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힘겹게 지내고 있다. 이 글은 그런 탈북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적응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글이다. 이 글에 나오는 탈북학생 은혁이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탈북학생들 사례를 참고하여 기술한 가상의 인물이다. 은혁이의 사례를 통해서 탈북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탈북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은혁이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떠나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서 소학교 때까지 살았다. 은혁이의 어머니는 은혁이가 소학교에 들어갈 때즈음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먼저 들어왔다. 은혁이는 5년 정도 어머니와 떨어져 중국의 친척 집에 살면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어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지금 은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여 2학년에 다니고 있다.

## 장면 1 북한배경의 공개 여부

탈북학생들이 자신을 북한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은혁이도 중국에서 입국했다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같은 학급의 친구들은 은혁이가 한국말과 중국말을 둘 다 구사할 줄 아는 것을 신기해하며 은혁이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기도 했다.

은혁이는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생겼고,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배경을 이야기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은혁이가 북한출신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면서 은혁이의 학교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혁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친구들의 불편한 눈길을 견뎌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혁이는 중학교에 가면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밝히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은혁이는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담임선생님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같이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혁이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은 곧 학교에 소문이 퍼졌고 은혁이는 별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면서 위축된 상태로 중학교 생활을 해야 했다. 다행히 이런 은혁이의 상황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은 은혁이에게 몇몇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었고, 덕분에 은혁이는 점심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들과 방과 후나 주말에 숙제도 함께 하고 컴퓨터게임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은혁이는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드러내지 않으며 생활을 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북한출신인 것이 소문이 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이전과 다름없이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 은혁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탈북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생각해주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좀 여유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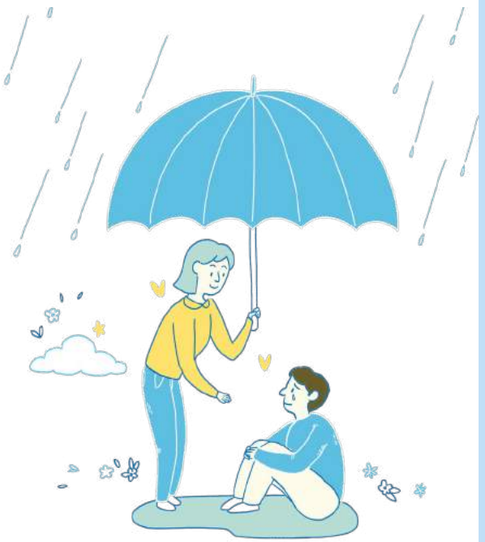


> 혁이가 북한출신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면서 왠지 모를 친구들의 불편한 눈길을 견뎌야만 했다.

## 장면 2 학습한국어의 어려움과 멘토링

은혁이는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계속 사용했고 중국에서도 조선족 마을에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말과 중국말을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은혁이는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에도 한국말을 알아듣고 말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학교생활이 계속되면서 은혁이는 조금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으며, 한국어로 글을 쓸 때에도 맞춤법이나 문법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 있었다. 시험을 볼 때에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은혁이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처음에 은혁이가 한국어 구사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혁이가 공부하는 데서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은혁이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은혁이와 면담을 하고 멘토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은혁이와 담임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혁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독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점에 가서 은혁이가 읽고 싶은 책들을 고르면, 선생님은 그 책들 중에서 은혁이의 수준에서 적당한 책을 골라서 읽도록 추천하였다. 먼저 고른 책들은 과학이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방과 후에 선생님이 일하시는 중에 은혁이는 옆에서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그 단어나 내용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멘토링이 진행되었다.
담임선생님의 독서 멘토링은 은혁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를 통해 은혁이의 한국어 이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중학교 진학 이후 수업시간에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면 3

## 어머니와의 갈등과 심리상담

은혁이는 어머니와 5년간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다. 중국의 친척 집에서 지낼 때는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게 되니 편하고 좋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이 생겨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좋았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은혁이는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직장에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은혁이는 학교에 다녀온 후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은혁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면서 지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머니 몰래 새벽까지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에 지각을 하는 일도 잦아졌다. 어머니는 은혁이가 컴퓨터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혁이를 야단치며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은혁이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자 은혁이를 윽박지르며 심하게 야단을 쳤다. 그렇지만 은혁이는 엄마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왜 나한테 간섭을 하냐며 어머니에게 대들었고 모자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
은혁이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학교 생활도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지각이 잦았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 성적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은혁이의 중학교 담임선생님은 은혁이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은혁이의 상황이 여느 학생들과 달리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담임선생님은 은혁이가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부터 함께 지내게 되었고, 어머니와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은혁이에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다. 그렇지만 은혁이는 심리상담을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았고, 은혁이 어머니 역시 심리상담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담임선생님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은혁이 어머니에게 한국에서는 전문직업인들도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은혁이가 심리상담을 받으면 생활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득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 담임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은혁이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은혁이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 상담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몇 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주고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상담사 선생님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혁이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게임을 두고 어머니와의 의견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그전처럼 심하게 대립하지는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게 되었다.





장면 4

## 중학교에서의 멘토링과 진로 결정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은혁이는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멘토링을 받지 않으며 지냈다. 중1 담임선생님은 은혁이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미술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은혁이와 멘토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은혁이는 영어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영어학원을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집안 형편상 학원을 다니기에는 어려운 처지였다.
어느 날 우연히 진로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은혁이는 진로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소개받아 영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은혁이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대학생 멘토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별로 재미도 없고 영어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아서 멘토링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이런 은혁이의 상황을 알게 된 진로선생님은 은혁이와 다시 면담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은혁이가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진로선생님은 은혁이와 상담을 통해서 은혁이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은혁이는 활동적인 운동 관련 멘토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은혁이는 진로선생님의 소개로 농구 멘토링을 받게 되었는데, 은혁이는 농구에 재미를 느껴서 멘토링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멘토링을 통해 농구를 곧잘 하게 된 은혁이는 학교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고, 이것이 중학교 생활을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3이 된 은혁이는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은혁이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담임선생님은 은혁이의 적성이나 성적 등을 고려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중1때부터 은혁이를 꾸준히 보아왔고 지속적으로 은혁이와 면담을 했던 진로선생님의 조언이 은혁이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진로선생님은 중학교에 학교설명회를 온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선생님을 은혁이에게 소개해주었고, 은혁이가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은혁이는 자기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설득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은혁이는 도제반에 들어가서 2학기부터는 회사에 나가서 실습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은혁이는 자신이 한국의 학교에 적응하고 이렇게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학교 적응을 도와준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어 멘토링을 꾸준히 진행해주었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과 자신의 생활과 진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주었던 중학교 진로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글 _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 학교 안팎 다문화교육의 현주소

> 이주배경학생 지원대책은 이주배경학생을 '결핍'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교육적으로 접근

한국 정부가 다문화교육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이후 지금까지 매년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대책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전달된 다문화교육 대책은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현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교육적으로 다루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한국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차이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학생들의 차이를 고려했다면 그것은 지능, 언어, 행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문화, 언어, 정체성을 다루는 교육이 절실해졌다. 다문화교육은 이런 상황에 도입이 되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차이도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기존에 보여준 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을 '이주배경가정'이라 부르자

하지만 다문화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꾼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철학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6년 대책에서 '다문화주의'를 언급한 후 지금까지 그 어떤 철학적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암묵적인 철학은 동화주의다. 이는 16차례 대책이 하나 같이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지만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교육이다. 문제는 이 동화주의적 교육을 '다문화교육'이라고 부르는 데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교육이다. 동화주의적 교육을,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적 대안에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은 전통이민국가인 영미권의 교육이고, 상호문화교육은 선발이민국가인 유럽권의 교육이다.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은 이민의 역사,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볼 때 유럽권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차례 대책에서 다문화교육은 1,017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상호문화교육은 2020년에 단 한 번 언급했다. 이런 이론적 편향을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유해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다문화교육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혼란은 용어, 대상, 방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용어상 혼란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이해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전통이민국가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고, 선발이민국가에서는 대개 '이주배경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과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는 각각 '국제결혼가정', '과국(跨国)혼인가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필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배경가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용어상 혼란은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용어다. 대부분의 교사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이고 '다문화이해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본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고, '다문화이해교육'은 학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용어다.

한편, 실천상 혼란은 다문화교육을 체험 위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본래 다문화교육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인 평등, 정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평등, 정의, 인권과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지, 단순히 여러 문화를 체험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책은 문화체험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전통 옷 입어보기, 전통 놀이하기, 경극 가면 만들기 같은 체험활동을 '다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으나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 간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 이주배경학생을 '자원'의 관점에서 보기

그럼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주배경학생지원대책'과 '다문화교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배경학생지원대책에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기초학력지원, (부)모어교육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문화교육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교육, 반차별교육, 인권교육 등을 포함시키고, 2015년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듯이, 이것을 모든 시간에 범교과학습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 중에서 이주배경학생지원대책은 이주배경학생을 '결핍'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대책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와 기초학력이 '결핍'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보충하는 데 치중했다. 이들의 한국어능력과 기초학력은 낮은 게 사실이기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교육이 거기에 멈춘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이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고 이들의 잠재력이 이중언어 화자로서의 잠재력이라면, 교육은 이것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 및 학교 구성원이 이들의 (부)모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어를 수업시간에 가능한 많이 활용하는 것, 방과 후에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선진국들은 (부)모어를 (영어 대신) 제1외국어로 택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에는 3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연자원이나 관광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은 국가의 발전을 우수한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 점을 더욱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일반 학생에게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공립종합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것을 신설하여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어, (부)모어,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는 직업교육을 받고 일부는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배경학생에게 (부)모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다. 만약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이주배경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줄이고 나아가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문화교육은 우리 교육의 민족주의적 성격, 획일성을 벗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구는 아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으로 21세기 다문화사회를 준비시켜 주는 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 (역)(2009).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장한업(2021).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대책(2006~2021)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제6호 p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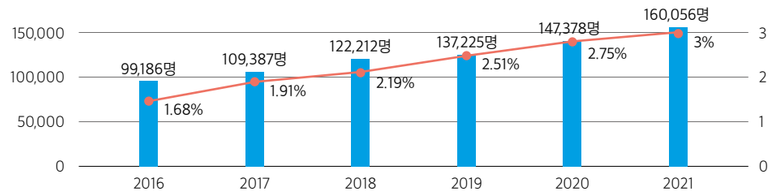
**글** _편집실




교육부는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원계획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과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추진 과제는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다문화교육 지원체제의 내실화 등이다.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16만 명을 초과했다. 국내 출생·중도입학·외국인 학생 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최근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 다문화 학생 현황**



##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다문화교육 수요에 발맞춰 교육부는 이러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진입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들은 다문화 학생의 입학, 편입학 등 공교육 진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중학교 입학 거부를 방지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중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중학교 진입 및 학력 심의 운영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법무부의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자녀에게 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와 영상을 배포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대상인 만 6세 자녀 학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입학을 안내하여 적기에 입학을 도모한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편입학 예정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을 생활영역과 학습영역으로 구성하고 학습자 특성에 따라 중점 학습 요소를 반영한다. 징검다리 과정을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중학교의 담당 교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가 함께 지도한다.

## 입국 초기부터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배움·채움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통한 인재 양성

교육부는 입국 초기부터 안정적인 학습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5명 이상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제별 영상콘텐츠 및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배움·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초기 적응부터 학습 결손 보완과 진로 지도까지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운영안은 다음과 같다. 서울 '한빛 마중교실'은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 충북 'KSL 디딤돌 과정'은 공교육 진입 전후 다문화 학생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 인천은 기초학력 학습지원 멘토링을 운영하고 전북은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진로캠프'를 위탁·운영한다. 부산은 오케스트라단, 뮤지컬부를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문화·예술 진로 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 및 국공립유치원에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비롯해 학습, 숙제 지도, 고민상담 등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멘토링은 교육비와 교육 급여 수급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매칭하고 소외지역에 사업비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연구학교를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곳으로, 2021년 기준 713곳에 이른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로 지정된 정책학교 8곳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통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교육 포털(www.edu4mc.or.kr)을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학교 가정통신문' 제작도 지난해 5개의 언어에서 올해 14개 언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다문화 학생 전체 학업중단율(0.67%)과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0.23%)은 전년 대비 각각 0.28% 포인트, 0.05% 포인트 하락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재 17종, 교과보조교재 17종, 이중언어교재 9종 등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교육포털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림 2 -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추진과제

| | |
|---|---|
|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 ①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br>②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
|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 ①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br>②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
|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 ①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br>②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br>③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 4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 ① 다문화교육 제도 개선 및 실태 파악<br>②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계획

글 _ 강정훈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Me_Too)는 연대의 물결(#With_You)이 되어 많은 분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생들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된 이른바 '스쿨미투'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전담팀을 구성(2018년 3월)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어 2019년 5월,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승격시켜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계획'이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1]

1 관련하여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 포럼을 개최하였음(2022.2.25.).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스쿨미투 이후 설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을 확대·개편하여,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승격·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학교 조성'을 비전으로 ①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및 ②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교육분야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부서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전문가를 담당관으로 영입(2020년 9월)하여 7명의 직원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1 - 교육분야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 | | |
|---|---|---|
| 비전 |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학교 조성 | |
| 비전 | ① 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②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 |
| 추진과제 | ①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 | ②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
| | ❶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활성화<br>❷ 대학 양성평등 및 조직문화 개선<br>❸ 양성평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 ❶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br>❷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및 점검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지원 강화**

교육부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누구나 두려움 없이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하고, 접수된 사안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2018년 12월)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예방교육 강화,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써, 이후 매년 이행점검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n번방'이라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한 2020년에는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 예방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 및 교육적 조치 등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만이 아닌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2021년 12월에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19년 5개 → '21년 15개)하여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정책수요 인력 확대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 교원을 위한 직무연수, 맞춤형 업무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불시점검을 정례화(연 2회 이상 권장)하였고, 점검 안내서 배포, 전문업체 점검 지원 등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정책의 실제적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다수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성폭력 전담기구(상담센터 등)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매뉴얼 및 교육자료 보급, 담당자 연수 및 자문·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능을 포함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징계기준 강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성비위 교원 징계 강화

*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교원의 징계기준 준용('19.10.사립학교법),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행 의무화('19.3.사립학교법), 성범죄 처벌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20.1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성비위 징계 교원 일정 기간 담임 배제('20.12.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 **(징계 투명성·형평성 제고)**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을 통해 교원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징계 의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위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위촉

○ **(교원 양성기준 강화)** 교원 자격 취득 시 교원 양성과정에서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21.2.교원자격검정령)

##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및 근절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상수도 정비사업'에 빗댈 수 있습니다. 사안 대응과 조치만으로는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며, 학교 양성평등 교육이 활성화되어야만 전체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양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을 주도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원들을 현장지원단으로 양성('20년 183명, '21년 196명)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고, 독자적인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21년 220개교) 운영, 우수사례 모델화를 위한 국립학교 상설연구학교 운영('21년 4개교, '22년 6개교) 등을 통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업활동 사례



가정·지역사회 연계 행사

또한,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이 체계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큰 변화가 기대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세상으로 확대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년 교육부 국민참여단 평가에서 최우수 정책 아이디어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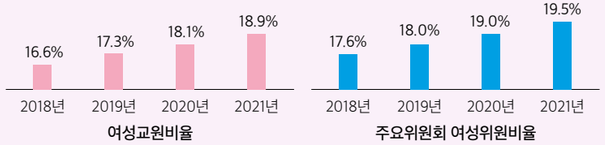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2021.9.24.개정, 2022.3.25.시행)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제17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4항 신설)

## 교육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성별 차이를 극복하고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초·중·고의 여성 관리자(교장, 교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학사회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여, 여성 교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을 높임으로써 양성평등한 대학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개정(2020년 1월)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2020년 9월)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그림2 - 대학 여성교원 및 주요위원회 여성비율




## 학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개정된 법령에 근거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학교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급에 맞는 세부적인 양성평등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운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방안' 연구를 2022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수·학습 역량을 갖춘 교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직 교원 양성평등 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센터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자문·컨설팅, 그리고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성과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도 성희롱·성폭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예방교육과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학교를 위하여,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에 교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30년까지 국립대학 교원의 한쪽 성별이 25%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연도별 목표비율 구체화

# 국토 최동단 '독도'를 알아볼까?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 | |
|---|---|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22. 확장·이전 재개관) |
| 부산 | 부산광역시교육청('22. 구축 예정) |
| 대구 | 대구창의융합교육원 |
| 인천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22. 재개관) |
| 광주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 대전 | 한밭교육박물관('22. 재개관) |
| 울산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
| 세종 | 새롬고등학교 |
| 경기 | 경기평생교육학습관('22. 재개관) |
| 강원 | 강원 원주교육문화원('22. 신규 개관) |
| 충북 | 충북교육도서관진천문학관('22. 재개관) |
| 충남 | 충무교육원 |
| 전북 | 전라북도교육청('22. 구축 예정) |
| 전남 | 여수교육지원청('22. 재개관) |
| 경북 | 경북교육청연구원 |
| 경남 | 경남교육청과학교육원('22. 재개관) |
| 제주 | 제주교육박물관 |

## 전국 시도별 독도체험관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 도입

# "놀이로 AI와 만나요!"





1 인공지능 로봇 알파미니와 춤 축제 2 스마트팜 키트에서 채소 기르기 3 AI 로봇 달리기 경주



AI 교육 ㅋ의미 /사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AI)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에 AI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고, 중·고교는 2025년부터 여러 과목에서 AI와 관련된 과목을 배우게 된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한 충남형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유치원에도 인공지능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교육의 핵심 내용이자 도구로서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 3월 인공지능(AI)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1~2025년 충남형 인공지능(AI)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2021년부터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충남형 인공지능(AI) 유아교육을 구축해가고 있다.

### 충남형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교육 자료를 활용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이를 통해 충남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AI)교육 시범유치원 총 4개원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해 유치원으로 확산하는 이끎유치원 20개원을 포함 총 24개원을 운영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건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이다.

인공지능(AI)교육 시범 및 이끎유치원은 운영비와 환경 구축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유치원 인공지능 놀이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유치원 내에 AI 스피커, 클로버 램프, 알파 미니 등 만 3~5세 유아 연령에 적합한 AI 기기를 비치하고, 이들을 활용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 기반 환경+놀이중심 교육과정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교육을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 영역을 4개로 구분했다. 각 영역은 'AI이해, AI활용, AI융합(개발), AI윤리'로 유아 단계에서는 AI활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유아의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생활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즉, 유치원에서의 인공지능(AI)교육은 유아들의 삶과 놀이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아 스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놀이를 확장해 가는데 목적을 둔다.

일례로, 유아들은 스마트렌즈를 통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도 하고, 카메라와 앱을 연동해 숨바꼭질 놀이를 함께 하거나 구글 카드보드로 유럽을 가상현실 이미지로 만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접한다. 특히, 또래 유아들과 함께 AI 기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르게 듣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한 싹 틔우기 등을 통해 생명존중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들은 AI를 활용해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교사들은 이를 통해 주도성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한다. 놀이로 만나니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흥미로운 놀이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전문가 초청 연수,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규모 유치원들은 공동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 AI 놀이실행자료 2권 개발… ‘이끎유치원’ 통해 현장 확산



AI교육 도움자료

충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본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교육 놀이실행자료「놀이로 만나는 AI」Ⅰ, Ⅱ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 놀이 실행자료에는 유아들의 생활 속 놀이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유아담당 장학사는 “유치원에서 인공지능(AI)교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2021년 시범유치원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이 교육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서 인공지능(AI)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며, 이끎유치원을 새롭게 선정해 선도유치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 속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사고력을 기르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AI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사례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충남형 인공지능(AI)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 놀이중심 AI활용 사례

| 구분 | 내용 |
|---|---|
| AI활용 신체 놀이 | • 알파미니, AI카메라<br>- 안녕!, AI 친구야! 같이 놀자! - 신나게 춤을 추고 별을 모으자!<br>- 로봇과 함께 하는 신나는 춤추기 |
| | • 스피로, 보틀리<br>- 우리반 올림픽 경기(축구, 피겨, 육상 등) - 힘센 보틀리! 정리를 도와 줘! |
| AI활용 미술놀이 | • 터블봇, 오조봇, 보틀리<br>- 우리 같이 그림 그리자! - 로봇이 그린 그림 - 길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 |
| AI활용 역할놀이 | • 알파미니, AI스피커, 태블릿<br>- 우리반 패션쇼 - 우리반 영화 보기 |

※ 출처: 충남교육청 인공지능교육 놀이실행자료「놀이로 만나는 AI, Ⅱ」“나와 함께 놀이하는 친구들” 중 일부 발췌



# EDUCATION NEWS

vol.477
APRIL




## NEWS 01 학생 224만 명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보충과 튜터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1년 사교육비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교육 활동 위축,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등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교과 및 특기적성에 관한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영·수 등 교과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현직 교·강사가 교과를 보충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예비교사인 교·사대생이 소규모로 학습 보충·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한다.

돌봄 운영 시간은 학부모 수요와 시도별 여건에 따라 19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 휴교 등을 대비하여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야간과 주말을 포함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앱을 활용해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돌봄을 신청하는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NEWS 02 울진산불피해학교 학생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부가 울진산불피해학교 학생들의 건강 상태 확인과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개 팀의 지원을 받아 산불피해가 심한 5개교를 방문한 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검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 검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북대학교병원 의료 부분 1개 팀의 추가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로 화재를 경험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전문가와 아동청소년 심리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연령별 심리안정화 교육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생의 심리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0개교를 대상으로 전문청소업체를 활용하여 내부에 오염된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기 청정기 필터 교체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할 계획이다.



#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다!

글 _ 유인영 극동대학교 입학처장(前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

## '벚꽃괴담'이 낭설이 아닌 이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 잎을 깨울 때쯤이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이다. 벚꽃은 대학에 참 고마운 존재였다. 노래 가사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그 거리를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떠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접한 곳에 위치한 대학은 부담 없이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대학의 입장에서도 캠퍼스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교 이미지 상승과 그에 따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벚꽃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대학가에 만연하게 된 이른바 '벚꽃괴담'으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다. 입시 관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괴담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대학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 수 있을법한 이 우스갯소리가 대학 입장에서 한없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다. 60~70만 명이였던 수험생 숫자가 이제는 40만 명대까지 내려왔고 현재 한 해 출생인구가 20만 명대이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적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의 기준이 다른 무엇이 아닌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점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대학들은 억울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비수도권 대학들은 무섭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토대로 시계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벚꽃엔딩 현상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존재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의 징후가 선명해지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보다 급속히 엔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하니 대학의 벚꽃엔딩은 분명 낭설은 아니다.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과 '분배'이다. '생산'의 문제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문제인데, 바로 이 '생산'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무너지고 있다.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나 정부의 노력은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인구는 나라의 근간이며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면 현재 구축된 시스템들이 붕괴되어 결국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분배'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달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문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보다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정책을 설정하여 실행하는데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표를 의식하여 거시적인 대안이 아닌 포퓰리즘성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제쳐두고라도 대한민국의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이미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 관계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11.8%이다. 이 안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91%가 밀집해 있다. 세부지표를 보면 더 심각하다. 병원 접근성은 서울의 경우 평균 1.97km인데 강원도의 경우 22.73km에 달하며 어린이집의 접근성은 서울이 0.86km, 강원이 7.81km이다. 이 외의 여러 인프라를 비교해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수치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지방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11월에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5%인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구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전체 시·군·구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마저도 계속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의 붕괴를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세종대왕이 했던 사민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방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수양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핵심적인 역할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대의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고, 지방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균형발전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16년간 144조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 간 격차는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다. 지방에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지역 대학들을 지원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들로 인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외부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으며 넓어진 인재풀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시기인 진학단계에서의 유출과 구직단계에서의 유출을 지방의 대학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존재 여부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수천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학가의 원룸촌과 주변 상권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많은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반대로 폐교된 대학 주변은 급격히 공동화되고 상권도 초토화 되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미치는 대학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학평가에 지방대학의 특수성 반영해야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지방대학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이 충원율인데 '인서울'이란 단어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대학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줄이다 보니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더욱 힘들어진다. 지역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가 이 씁쓸한 현실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의 메커니즘과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해 엄청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지방의 대학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는 대학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대학들이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활로를 열어주고 확실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지방대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지역 내의 중소기업 인력 공급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에 정주함에 따라 지역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마 전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났다.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지방대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5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려 깊고 현명한 정책들을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
지방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수양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핵심적인 역할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



신환희
수어통역사

# 농인의 고유언어 '한국수어'로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



**수어는 손과 미세한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등에 의해 표현되고, 시각으로 수용되는 시각언어다. 손의 모양, 위치, 몸의 방향, 움직임, 눈의 감김의 정도, 입술이 벌어지는 정도, 볼에 바람이 들어가는 정도 등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한국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어휘와 문법체계를 지닌 한국수어. 올해로 15년 경력의 신환희 수어통역사를 만나 한국수어, 그리고 수어통역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_편집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手語·수화언어)는 또 하나의 국어로 공인되었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한 언어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2017년 9월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수어 능력향상 및 보급,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수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2019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정책발표나 재난 상황 브리핑에 수어통역사가 동석하여 수어 통역을 제공해 오고 있다. 수어통역사는 농인과 청인(聽人)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올 1월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조항(제16조 3항)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중요 정책발표 시 수어 통역 제공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수어통역사의 활동 초기에는 주로 일상생활 및 사회복지 차원의 범주에 제한돼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전문직업인으로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왔다. 국내의 경우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교육, 의료, 법률, 미디어, 직업(취업 알선 등), 의식(종교, 결혼식 등 각종 행사), 민원, 수화통역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는 수어교육원이 개설돼 있으며, 시군구에 200여 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환희 수어통역사는 2020년 4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및 정부 부처의 브리핑에 참여해 왔다.

다음은 신환희 통역사와의 일문일답.

## 수어통역사가 된 계기는?

대학교 4학년 때 교양수업에서 처음 접했던 수어가 인연이 됐다. 교양수업 담당 교수님이 교회의 농인부서 목사님이셔서 수업 과제로 교회에 가서 농인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농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때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수어를 배웠다. 교회에서 간단한 통역과 종종 주변 지인들의 일상생활 통역을 하였다.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온전히 수어에만 몰입하여 열심히 준비한 끝에 2007년 통역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5년 동안 여러 학회, 세미나 등에서 통역을 맡기도 하고, 나사렛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 통역도 한다. 또 교회에서 통역도 맡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역 중인 신환희 수어통역사(교육부TV 화면 캡처)

## 정부의 브리핑 방송통역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여하면서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브리핑 통역을 해왔다. 코로나19 브리핑 방송 이후로 수어통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 이전에는 수어통역사가 브리퍼 바로 옆에 서서 통역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을 농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 같다.

## 지난 1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수어통역사의 미디어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정부의 중요 정책발표를 브리핑할 때 수어의 실시간 동시통역을 법제화한 건 매우 반가운 이슈다. 하지만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측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수어통역의 방송 편성비율이 5%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 비율을 좀 더 끌어 올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프로그램의 수어 통역이 실현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애니메이션의 수어방송 편성이 심야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을 즐기는 농아동이 있다면,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시청하게 해야 한다.

또 방송화면 하단에 동그란 창으로 송출되는 수어통역 장면은 청인이 들으면 '1' 정도의 볼륨이라고 보면 된다. 잘 들을 수 있는 청인들처럼, 농인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인 시청자들을 위한 수어통역은 방송사의 편의에 따라 수어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통역창이 닫히거나, 통역사의 신체 일부가 가려질 때도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제공이 아닌, 농인 시청자들을 위한 진정한 수어통역 제공이 되길 바란다.

## 수어 통역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수어통역사는 언어적 소질, 즉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동시통역일 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 신속한 파악과 직관력 등이 필요하다. 수어통역은 체력 소모가 크고, 초집중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15~20분마다 대기하고 있던 동료와 교대하게 된다.

또 다른 언어의 통역과 마찬가지로 수어 통역도 통역내용 관련 사전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작년 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 때 수어통역을 했다. 통역 전날 늦은 오후에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로켓 발사체의 비행경로, 산화제탱크, 헬륨탱크, 연료통, 인공위성 관련 과학기술 용어들이 모두 생소했다. 통역하려면 이런 어휘를 바로 눈앞에서 영상을 보듯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누리호 발사체가 분리되는 영상' 및 각 단어에 해당하는 관련 실제 이미지 및 영상자료를 최대한 찾아보았다. 그 이후 수어법에 맞게 표현을 정하고, 밤잠을 설치며 말을 듣고 빠르고 자연스럽게 수어가 나오도록 연습하고 갔다. 보통 농인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어를 대충 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물체의 크기, 모양, 속도, 위치, 방향을 각각 수어에 맞는 눈, 코, 입의 모양 등 수어법에 맞게 번역하여 표현해야 한다.

## 수어통역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나와 농인이 눈을 마주보며 서로 통역에 몰입하고 청인과 농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청인이 느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농인도 함께 느끼게 될 때다. 학교에서 강의 통역을 하면서, 자주 목격하던 순간이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도 수어통역, 문자통역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던 내성적인 신입생이 수어를 배우면서 표정부터 밝아지기 시작한다.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감이 넘치며 사교적인 학생으로 변해간다. 그 변화하는 성장 과정에서 수어통역사로서 함께 할 수 있어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

## 농인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더 있다면?

농인 구성원을 둔 가정의 경우, 청인 부모 밑에서의 농인 자녀, 농인 부모 밑에서의 청인 자녀일 확률은 보통 90%가 넘는다. 농인 부모 대 농인 자녀인 가족 구성원은 10% 정도다. 농문화의 정체성이 온전히 정립·계승되지 못하고 농인이 청인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럴 경우, 농아동의 청인 부모가 기대하는 선택지는 대개 인공와우 수술, 혹은 보청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여기에 수화언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이제는 청인들도 농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농문화를 배우고 기본적인 수어 정도는 익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어통역사의 직업인으로서의 미래전망은?

현재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농인이 수어로 청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통역 분야도 전문적으로 더 세분화되어 전문직으로서 지금보다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TIP BOX** | **한국수어 통역 관련 자격증 취득**



**• 자격증 시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2017년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 한국수어능력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사)한국농아인협회 주관의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국립국어원·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 (사)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

**• 관련학과**

나사렛대학교(학부-수어통역교육 전공/재활복지대학원_석사-수어교원학)와 한국복지대학교(한국수어교원과) 강남대학교 대학원(석사-수화언어통번역학과), 총신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_한국수어교원 전공)에 수어 관련학과가 개설돼 있다.

# 제2의 공용언어로 '수어' 함께 배워요!



수어(수화언어)는 손의 움직임과 얼굴표정,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다. 청각장애인과 그의 가족, 수어통역사 등이 사용하는 언어로 국내에서는 나사렛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등에서 전문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어통역센터와 수어전문교육원 등에서 한국수어통역사와 한국수어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수어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제2의 공용언어로 '한국수어'를 함께 배워보자.

##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 204곳의 수어통역센터에서 찾아가는 수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한국농아인협회는 1946년 설립된 이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도해왔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에 204곳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농인들이 청력과 관계없이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농인이 관공서나 은행, 병원, 경찰서 등의 업무를 볼 때 장애의 이유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업무 처리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수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어교육에 관심있는 학교나 기관에서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에 신청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는 중앙지원본부 누리집(www.17nsl.com > 본부소개 > 전국수어통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소**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 **교육문의** 02-6925-0175
- **문자/영상전화** 010-5846-0175
- **신청방법**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누리집(www.17nsl.com)






1 찾아가는 수어교육 프로그램
2 한국농아인협회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 수어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수어통역을 배울 수 있는 곳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한국수어통역사와 한국수어강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며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저변확대를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에 있는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본인이나 가족 중 농인이 있는 경우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4,300여 명이 이곳에서 수어교육을 받았다. 1개월 과정의 초급반부터 전문적인 자격취득과정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먼저, '기본과정'은 수어를 처음 배우는 이를 위한 '수어초급' 과정과 '수어중급', '수어고급'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어의 구조 및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심화·통역과정'은 수어학습에서 더 나아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이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수어·음성통역'을 바탕으로 통역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전문과정'은 수어 구사력이 좋거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수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풍부한 수어표현법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경기도수어교육원(국내 첫 수어 전문교육기관 1577-8690), 전남수어교육원(2020년 개소), 광주수어교육원(3월부터 운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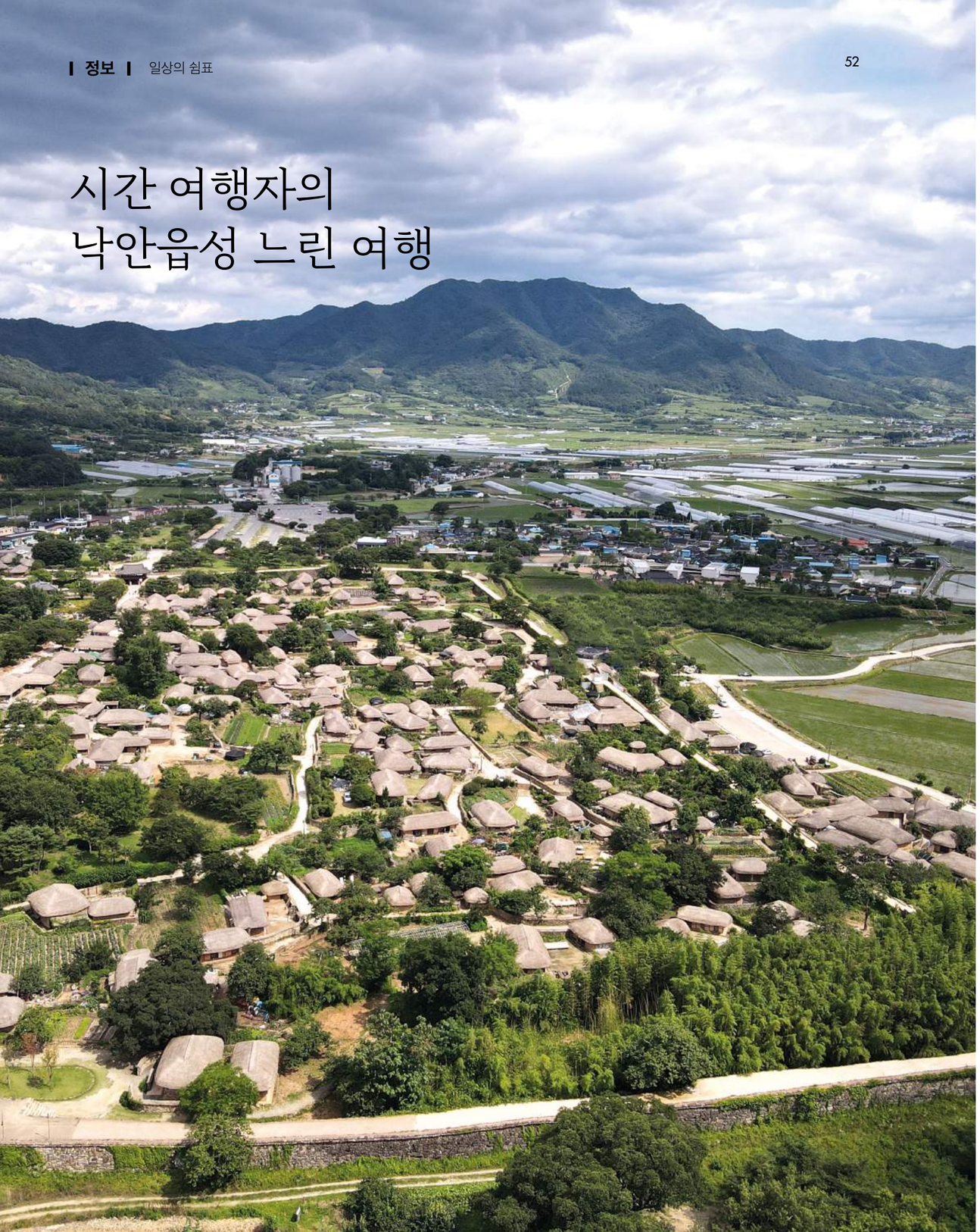





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교육장
2 수어교육 혼련
3 교육원 수어교재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15 엘림넷빌딩 5층, 지하1층
- **교육문의** 02-393-3515
- **영상전화** 070-7947-1616
- **신청방법**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누리집(www.sdeafsign.or.kr)

# 시간 여행자의 낙안읍성 느린 여행



'순천 낙안읍성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관람객이 모두 빠져나간 초저녁에 골목 산책을 하고, 할머니가 사는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성곽 위에서 일출을 보고, 낙안팔진미가 차려진 아침 밥상을 받는 것이다. 같은 여행지일지라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추억이 다르게 적힌다. 그저 그런 여행이 될지, 잊지 못한 추억이 될지는 계획하기 나름이다.

**글 · 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1



2

## 가는 날이 웃장 오일장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순천에 온 날 '웃장(5·10)'이 섰다. 웃장은 순천 구도심 북쪽에 있는 장으로, 1920년대에 조성된 역사 깊은 전통시장이다. 웃장 남쪽에는 '아랫장(2·7)'이 선다. 오일장 날에는 장터 옆 골목과 인도에까지 좌판이 들어선다. 인도 좌우에 좌판이 늘어서 통행이 불편할 만도 한데,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환하다.

오일장에 가면 제철 과일·나물·채소·생선 등의 식자재와 지역 특산물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다. 좌판에 앉은 할머니 상인들은 새벽부터 농사지은 잡곡과 밭에서 캔 고구마·상추·파·쑥·냉이 등을 장터에 이고 지고 와 판다. 채소와 나물값이 캐고 다듬는 품삯도 안 나올 만큼 싸다.

웃장에서 가장 소문난 것은 전국 제일 규모를 자랑하는 국밥 거리다. 웃장 국밥의 특징은 돼지 머리 고기와 콩나물을 듬뿍 넣고 맑게 끓이는 것. 2인분 이상 주문하면 수육과 선지 순대도 덤으로 준다. 푸짐한 인심에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부르다.

1 낙안읍성 안에 초가 9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2 순천 웃장은 매월 끝자리 5일과 10일에 열리는 역사 깊은 오일장이다.



3 유채꽃이 만발한 낙안읍성의 4월 풍경
4 낙안읍성민속마을의 초가 민박집. 읍성 안에 민박집이 많고 시설이 깔끔하다.
5 낙민관자료전시관에 전시된 낙안면의 옛 생활용품들

## 마을 전체가 사적지인 낙안읍성민속마을

낙안읍성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사적지로 지정됐을 만큼 조선 시대 읍성의 형태가 잘 보존돼 있다. 읍성 안 90여 채의 초가집에는 실제로 주민이 산다. 마을에 들어서면 쪽진 할머니가 마중 나와 반겨줄 것 같은 분위기다.

이 마을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 1,410m와 중요민속자료 가옥 9동, 노거수 15그루, 객사, 임경업장군비 등을 눈여겨보며 관람하는 것이 포인트다. 삽살개 석상 두 기가 지키고 있는 낙풍루를 통과하자, 너른 길이 시원하게 뻗어 있다. 길 오른편에는 수령이 공무를 보던 동헌, 중앙 관리가 출장 와서 묵었던 객사, 낙안면의 역사와 풍습을 소개하는 낙민관자료전시관 등이 자리했다. 길 왼편에는 민가가 올망졸망 둥지를 틀었다.

객사 홍살문 앞 비각은 1628년(인조 6년)에 세운 임경업장군비를 보호한다. 이 마을에 임경업 장군(1594~1646)이 낙안읍성을 하룻밤 만에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사실은 1626년 낙안군수로 부임한 임경업 장군이 토성이었던 낙안읍성을 석성으로 고쳐 지은 것이다.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때도 공을 세우는 등 선정을 베풀었기에 백성 사이에서 그런 전설이 만들어졌으리라 짐작해본다.

낙안읍성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은 서문과 남문 사이의 성곽 구간이다. 서문 왼쪽 계단을 통해 성곽에 올라 남문 쪽으로 향한다. 하늘 높이 자란 대숲을 감상하며 걷다가, 모퉁이를 돌면 가슴 뛸 만큼 놀라운 풍경이 펼쳐진다. 장방형의 성곽이 초가집들을 아늑하게 품고 있다. '낙안'(樂安)이라는 마을 이름이 땅과 백성이 두루 평안하다는 '낙토민안'(樂土民安)에서 비롯된 이유를 알 것 같다.





## 낙안읍성에서는 누구나 시간 여행자

성곽 위에서 마을이 손금 보듯 훤히 보인다. 돌담을 끼고 이어지는 고샅길이 꼬불꼬불 마을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초가 처마 아래에는 농기구와 메주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볕이 좋은 담장 아래에는 장독대가, 아궁이에는 가마솥이 걸렸다. 반쯤 열린 사립문 사이로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컹컹 짖어댄다. 초가집 사이로 수령 100년 이상 된 노거수들이 마을 수호신처럼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낙안읍성의 참모습은 관람 시간이 끝난 이후에야 드러난다. 초가 민박집에 하룻밤 묵으며 초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마을 분위기를 느껴본다. 초저녁이 되면 창호 밖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초가지붕 굴뚝 위로 밥 짓는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른다. 이웃집 소리꾼의 노랫가락이 잦아들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동틀 무렵이면 수탉이 요란하게 모닝콜을 한다. 이 마을에서는 시계를 보며 서두를 일이 없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샅길을 산책하고 돌아오면,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다. 가마솥에서 풍기는 구수한 밥 냄새에 식욕이 돋는다. 낙안읍성에는 무·미나리·석이버섯·녹두묵·천어 매운탕·더덕·고사리·도라지 등의 여덟 가지 식자재로 만든 '낙안팔진미'를 맛볼 수 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위로 수저가 날아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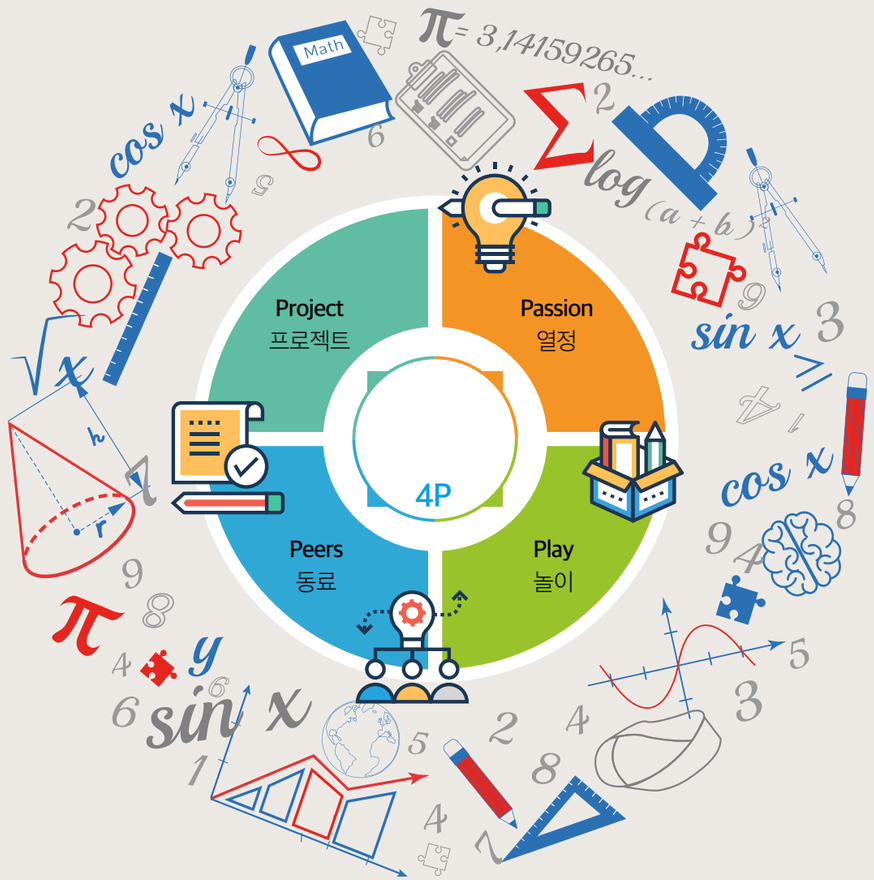
낙안읍성과 이웃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들러볼 만하다. 이곳에서 순 한글 잡지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한 한창기(1936~1997)가 남긴 유물 6,500여 점을 볼 수 있다. 우리 토박이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한창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손때가 묻은 생활용품을 살뜰히 수집해두었다. 삼국시대 토기와 불교 용구, 한글과 한문이 섞여 쓰인 '정순왕후국장반차도' 등은 박물관 중요 유물로 손꼽힌다.

### : 낙안읍성 민박 예약

낙안읍성 누리집(www.suncheon.go.kr/nagan/)에 민박집 정보 공개. 민박집에 전화로 직접 예약. 2인 기준 5만 원.

# 4P 과제설계 프로젝트로 창의력 키우는 수학교실

**글·사진** _ 박주연 부산 덕원중학교 교사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배우는 수학수업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의 추상화와 형식화에 있다.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왜 이런 개념과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모른 채 암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용어의 형식화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수학의 특징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필자는 대단원의 첫 번째 시간은 개념의 탄생과 용어를 정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용어의 형식화 과정 등에 대한 수학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단원의 개념을 통해 어떤 분야에 사용되어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끼고 단원을 학습하는데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 미래사회 역량 4C를 키우는 수학수업

3월 첫 수업 2시간은 한 학기 수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필자의 수업 철학을 밝히고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약속하는 시간이다. 첫 시간에는 미래에는 협업, 의사소통, 창의력, 비판적사고 능력이 미래 직업과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둠활동을 통해 4C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습피라미드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됨을 소개하고 있다. 평소 수학 수업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멘토-멘티 짝 활동 수업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와 과정중심평가는 모둠활동 및 모둠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멘토-멘티 짝을 만들고 멘토-멘티 2쌍이 모여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둠 구성원의 수준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학생들 스스로 선택한 모둠이기에 모둠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 수업형태를 유지하면서 모든 평가를 모둠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학생들 스스로가 멘토-멘티와의 관계, 모둠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모둠원끼리 협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는 볼 수 있었다.

1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멘토-멘티 짝 활동
2 수학적 분석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프로젝트 활동



1


2

## 4P의 과제설계를 통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미쳴 레스닉 MIT 교수는 창의성을 키우는 4P를 강조하고 있다. 'Project(프로젝트), Passion(열정), Peers(동료), Play(놀이)'이다. 4P는 교사들에게 전하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4P를 교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마치 놀이처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과제를 설계하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고자 '이 과제가 학생들이 열정을 쏟을만한 과제인가?', '과제활동이 놀이처럼 즐거운가?', '이 과제는 친구들과 협업과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되물으면서 과제를 설계하였다.

그래서 문제해결 프로젝트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필자의 수학 수업의 가장 큰 지침서이자 도전을 주는 것은 4P라고 할 수 있다. 수업과 평가에서 문제해결 프로젝트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짧게는 2시간 프로젝트에서 10차시 대형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였다. 모든 활동은 모둠활동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 모둠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모둠프로젝트 중에서 첫째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상상동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 프로젝트는 수학-국어 교과를 융합해서 진행한 10차시 프로젝트이다. 데이터 분석의 시대에 사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마이닝(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수업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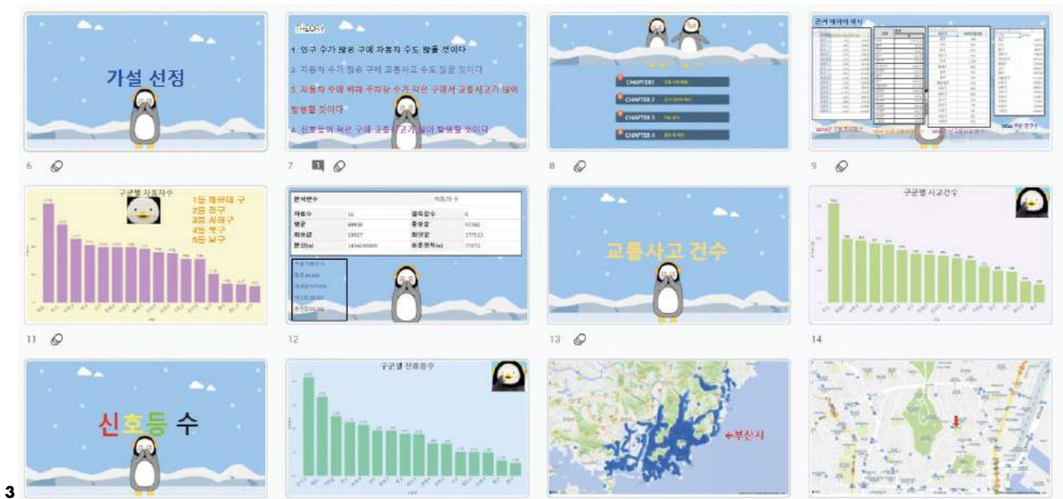
먼저 수학시간에는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한 소설책 1권을 선택한 후 소설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텍스트마이닝 사이트를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의 검색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그래프를 학생들이 읽고 해석하면서 빈도분석, 시계열분석, 키워드분석,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소설의 인물, 배경, 사건을 알아내고 소설의 스토리를 그래프 해석만으로 알아가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그래프 해석만을 통해 책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어시간에는 수학시간의 분석을 통해 알아낸 스토리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글의 짜임과 구성을 바탕으로 상상동화 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모둠에서 만든 상상동화 내용과 실제 소설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독서감상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인 분석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결합한 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에 학생들은 큰 성장을 이루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모둠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계프로젝트'이다. 통계수업에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공공데이터를 통계분석하는 경험은 통계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의 과제 중에서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부산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와 주차장 수에 따른 교통사고 관계'를 분석하였고 '부산의 인구는 왜 줄어들까?', '소득이 사회의식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산의 17가지 과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점을 제시하였다.

공공데이터를 통한 통계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통계가 얼마나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사회기반의 다양한 문제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쑥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학시간의 활동들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계프로젝트

#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글 _ 서덕인 안산광덕초 교사

세월이 유수 같다고 했던가? 초등 교직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년 차 경력에 이르렀다.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고경력의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와 같은 경력이지만 올해 9월에 10년 경력의 중간급 교사가 되어 보니 나에게는 뜻깊은 시점인 것 같다. 초임 교사로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호출을 당해 밤늦게까지 교장실에서 꾸지람도 듣고 남몰래 속상해하며 눈물바람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경력 5년 차까지 매년 임상장학 수업을 할 때면 한 달 전부터 지나친 걱정에 잠을 설친 적도 있었고 실제 수업 날 아이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진땀을 뺐던 기억이 새롭다.

## 또 지각했느냐의 나의 물음에 그 아이는 욕설을…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교과 지도가 아닌 생활 지도였던 것 같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교우관계가 힘든 아이,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이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다. 나는 흔히 9발이라고 하는 9월 2학기 시작에 발령을 받았다. 1학기와 다른 담임이 2학기에 오게 되니 아이들도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기대만큼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건지 바람 잘 날이 없는 학급이 되고야 말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반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교감 선생님이 내가 남들이 30년 동안 겪을 일을 6개월 속성반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셨을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어느 시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지금이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가 막심하다. 특히 예전 우리 반 한 여자아이 A가 뇌리에 오래 남는다. 과학 시간에 이유 없이 과학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뜯던 모습, 매일 지각을 하며 교실 뒷문을 아무 표정 없이 열고 들어오던 모습, 복도에서 서로 마주칠 때면 피식 비웃음 같은 표정을 짓던 아이. 특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그 아이는 매일 함께 지각을 하는 친한 친구 B가 있었다. 그 B는 담임인 나에게 반항적이진 않아서 늘 그 아이에게 지각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방과 후 남아서 학급규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도록 말을 건넸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를 함께 불러 또 지각을 했느냐며 조금 언성을 높이고 가보라고 하자 뒤돌아서던 A가 들릴 듯 말 듯 말을 흘렸다. "나에게 관심도 없는 xx가…"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A가 나에게 욕을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과 반성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재미없어~"

10년 동안 교사로서 가르치면서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 한 반 안에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애들을 더 보고 힘을 내라, 못된 모습은 때로는 못 본 척하고 그러려니 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평정심을 잃지 말고 착하게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일 테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보다. 나에게 반항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거나 별일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들도 많았음을 반성하고 고백한다. 비록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임시변통 대응이었음이 분명하다.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을 만든다'라는 문장은 나의 좌우명 중에 하나다. 경험이 쌓이면서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쌓이면서 여러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반에 담임인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는 본체만체하지 않고 일부러 더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더 눈 맞춤을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 구절처럼,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말했던 '길들여진다(Tame)'는 것을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하고 있다. 어쩌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아이들은 나의 관심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관심을 더 받고 싶어서 했던 일종의 몸부림은 아니었을지. 학급긍정훈육법(PDC)의 몇 가지 원칙 중에 '지적하기 전에 공감하라'라는 문구가 있다. 아이들을 훈계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끈(고리)을 만들라는 것이다. 아이들을 꾸짖고 비난하기 전에 진정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는지 나에게 반문해 보고 있다.

해가 바뀌어 학년 초에 새 담임반을 맡을 때면 반 학생들 이름이 적힌 명단을 동학년 선생님들과 무작위로 뽑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올해 평탄한 아이들이 많은 반을 뽑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다. 친한 선배 교사의 말씀이 떠오른다.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재미없어~". 겨우내 움츠렸던 매화 꽃망울이 기지개를 켜는 늦은 밤에 봄바람이 내 귓전에 살포시 전하는 말 같다.

FOCUS 01

# 새로운 시민성은 무엇인가?

글 _ 박선미 명예기자(시민의꿈평생교육 대표)

## 공존을 위한 책임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의사소통방식과 경제 행위의 방식 그리고 정치투쟁의 양식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변화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보다 정교하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첨단화 시스템으로 노동력 문제해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기술발달의 순기능 속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 채팅 프로그램인 테이(Tay)를 트위터에서 선보였다. 테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대화에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질문에 대한 기계식 답변이 아닌, 10대나 20대처럼 활발한 대화를 흉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작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인종차별과 소수자 차별, 극우주의 등을 대화 주제로 삼아 구설에 휘말리며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이를 다시 가르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과연 어떤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서 테이의 인공지능 발달을 시킬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학습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도덕적일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을 남겼다.

## 인공지능은 도덕적인가?

최근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대도시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면 교통체증이 사라지고, 범죄자가 차량으로 도주할 경우 원격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차를 멈추게 할 수도 있으며, 과속위반이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낼 일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차를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으며, 차량 상황이 온라인 상에 계속 보고가 되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모든 이동 경로가 나타나면서 차 안에서의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전석을 비워두고 술파티를 하며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2018년에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량의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만약 데이터 센서의 오작동 등의 기계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만약 공리주의 판단이 우선된다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다수를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만약 판단의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지점에서 인공지능에게 판단을 맡기고,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사람이 판단해야 할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할까?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분석하고 추천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콘텐츠 위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향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정치와 젠더 이슈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자사와 협력사의 상품을 우선 노출 또는 추천하는 등의 데이터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트위터 사용자들이 흑인 사진보다 백인 사진을 선호하여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가 항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 아동 등 잠재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의 자율성 극대화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교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로봇이 그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가공할 위험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으며, 로봇공학과 결합하여 군사적으로 이용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새로운 시민성을 위한 인간의 자율성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전통적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와 책임을 바탕에 두는 사회적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내어준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 자유, 인권 침해, 혐오라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시민성을 위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시민성의 속성을 따져볼 때, 개인의 자율성이 일상의 모든 것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들로 얽혀 이루어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화사회는 개인과 공동체에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사회기능론적 입장에서 사회 적응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사회의 시민성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유'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연구와 실천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우정렬 님

3월호 교육웹툰 '국가장학금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합니다'를 읽고 과거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상당 기간 동결되고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면 아예 없거나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전체 대학 중 80%나 되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나며 상당수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압도적이라 한꺼번에 등록금을 대폭 낮추기는 어렵지만, 점차 정부 지원을 늘려나가고 유럽처럼 국공립대를 점차 증설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사립대에도 국가지원금을 늘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과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정희 님

학교돌봄터 1호를 다룬 '판교대장초등학교' 기사를 무척 인상 깊게 읽었다. 어린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로서 학교에서 유휴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면서 편안한 곳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방과 후에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기관이 있지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봄 기관까지 이동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좋은 시설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진다니 더 많은 지역에 학교돌봄터가 생겼으면 한다. 다만, 기사를 읽으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인력충원 문제는 조금 무겁게 다가왔다. 안전한 돌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연희 님

요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어서 호기심에 읽었다. 버려진 웨딩드레스의 화려한 변신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떻게 재활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화려한 결혼식장의 꽃이 되어주는 웨딩드레스이기에 이 웨딩드레스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킨다니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웨딩드레스의 여러 소재들이 땅속에 묻으면 200년이나 썩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여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코햄체 박소영 대표님이 존경스러웠다.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400개가 생겼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매장들이 많아져서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EVENT** 힌트. 정책을 밝히다(p.32)



교육부는 '스쿨미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부
제4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분석"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22. 3. 21.(월) ~ 7. 1.(금)
※ 제출 기한 엄수
참가 신청 03. 21. (월) ~ 07. 01. (금) 이메일 접수
예비 심사 07. 06. (수) ~ 07. 08. (금) 서면심사
1차 심사 07. 11. (월) ~ 07. 13. (수) 서면심사
1차 심사 결과 안내 07. 14. (목) 온라인발표
2차 심사 07. 21. (목) ~ 07. 22. (금) 발표심사
온라인투표 07. 26. (화) ~ 08. 02. (화) 온라인
최종 결과 안내 08. 05. (금) 온라인발표
최종 시상식 08. 12. (금)
참여대상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
창업 아이디어 분야 대학(원)생, 일반인
데이터 분석 분야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방법
• 1팀 당 최대 3명까지 팀원 구성이 가능하며, 1명이 1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1팀 당 1개 결과물 출품(상세 작품 제출규격은 안내자료 참고)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교육」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관련 데이터셋 또는 교육 관련 기관(안내자료 참고) 제공 데이터셋 활용
※ 교육 공공데이터 미활용 시 예비심사에서 탈락
• 참가서류* 작성 후 이메일(hyeondh@keris.or.kr)로 제출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결과물, 활용 데이터 체크리스트,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해당
시상내용
시상 부문 | 시상 수 | 상장 | 상금
최우수상 (3팀) | 분야별 1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각 150만원
우수상 (6팀) |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2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상장 | 각 100만원
우수상 (6팀) | 창업 아이디어 분야 2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장 | 각 100만원
우수상 (6팀) | 데이터 분석 분야 2팀 | 한국교육개발원 상장 | 각 100만원
장려상 (6팀) |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2팀 | 한국과학창의재단 상장 | 각 30만원
장려상 (6팀) | 창업 아이디어 분야 2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상장 | 각 30만원
장려상 (6팀) | 데이터 분석 분야 2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장 | 각 30만원
입상 (12팀) |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4팀 | - | 문화상품권 각 20만원
입상 (12팀) | 창업 아이디어 분야 4팀 | - | 문화상품권 각 20만원
입상 (12팀) | 데이터 분석 분야 4팀 | - | 문화상품권 각 20만원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최 · 주관 · 후원 기관의 홈페이지 참조
이메일 : hyeondh@keris.or.kr 전화 : 053-714-0543
| 주최 | 교육부
| 주관 |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육개발원
| 후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